간증문 Joerg Christian Wannack

사랑받지못한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헤메던 삶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스바냐 3,17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것이다

저는 1976 년 1 월 22 일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4 남매중에 3 째로 부모님께는 첫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게는 2 명의 손위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릴때 운동장애가 있어, 혼자힘으로는 일어설수도 없었고 서있지도 못해 나무블록처럼 계속 넘어졌기에 아주 늦게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의사는 엄마에게 제가 절대 운전면허를 딸수가없을거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1 종 트럭 (LKW) ,2 종 운전면허증, 소용오토바이 면허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원치않으셨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때 자주 들었던 말은, 너는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할수없고, 아무 것도 될 수없을거다 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심하게 술취해 들어오셨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때리며 어머니에게 폭군같이 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동생과 제방으로 숨었고 울며 잠들었습니다.

당시 엄마에게 저의 힘들고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남자는 연약함을 보이면 안될 것 같았고, 엄마에게도 그럴 여유가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분을 참으며 잠이들고 나면 제 침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점점 심해져 스스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나이를 더 먹고 크면 엄마와 싸우는 아버지를 죽일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정환경으로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고, 엄마의 도움으로 힘들게 실업계 학교만 졸업할 수가있었습니다. 엄마는 신앙인이었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게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아세례당시 저의 요절말씀은 시편 9 편 1 절 후반부이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이말씀이 늘 저와 함께했고 1999 년 성인세례를 받을 때 다시 이말씀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기시작했고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청소년수련회, 컨퍼런스 등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서 배우는 가르침외에 더 많은것들을 알고싶었고 , 학습 (세례전 교육 –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이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교육과정) 후에도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날 저의 둘째누나가 꿈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저희들을 자기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누나의 집은 너무 작았기에 우리 셋은 새 집을 얻었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였습니다. 새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히터에 제 이불이 닿아 화재가 날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를 밤에 깨우셨고 저와 동생의 생명을 질식사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엄마는 신앙이있는 사람과 다시 결혼하기원하셨고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남동생은 새 아빠가 있기를 소원했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아빠가 되줄 수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짜증이났고 새 아빠에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새 아버지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버지라 부르는 대신에 그 이름을 직접 Gerhard 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는 새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성인이 된 우리 4 남매를 입양했고 저는 성을 Wagner 에서 Wannack 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무렵 저는 농사짓는 법등을 배우기위해 외할머니 집에 내려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게 농사 일을 신중히 배우도록 충고하셨습니다.

이때 트럭과 소형오토바이 면허증, 그이후 승용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Country 음악을 좋아합니다. 큰 미국식 트럭을 운전하며 이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저는 군대에 가는대신 13 개월 공익근무요원 으로 Thueringen 에 있는 실로암이란 사회단체에서 봉사했습니다. 이기간은 앞에서 말한 성년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던 때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예수님께 모든 일을 맡기게되었고 , 세례는 주님께 대한 순종의 첫걸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 개월의 공익근무는 때로 저를 침울하게 또는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게되었을 때 , 한 동료로부터 저는 또 다시 너는 할 수없어! 해내지 못할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순간 저는 폭발하였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있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에게 덤벼들어 바닦에 쓰러뜨린후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갑작스런 저의 돌격에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누가 말리지 않았다면 살인 사건이라도 났을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저는 상담을 받으며 아버지를 용서하도록 배웠습니다. 직선적이고 말을 함부로하여 싫어하던 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것이고,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싶었던 저도 함께 묻혀 다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없기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빠져있을때 Max 라는 개가 저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텐트에서 잠을 자면 제 옆에 들어와 같이 잠을 잤는데 어느날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한 복음성가의 가사는 제 위로와 힘이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프리카 가나로 보내기 원하셨고 저는 어학코스를 다니며 영어와 가나에서 사용하는 언어등을 배우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워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술취한 남자가 저를 욕하고 못생겼다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전같으면 또 다시 분노가 폭발하여 달려들었을 상황인데, 그때는 침착하게 나도 안다고 말할 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상밖의 말을들은 술취한남자는 말없이 가버렸고 저는 스스로도 이게 나였어? 라고 놀랐습니다.

저는 9 개월간 아프리카로 떠났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지만 아쉽게도 6 년만에 이혼하였습니다. 그후 Thueringen 에서 프랑크푸르트도 이사했고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교회에서 3 년간 있으며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뮤직팀에 들어가 섬기기 원했지만 청소와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 일만 했습니다. 저는 재능이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만 뮤직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당시 저희는 한 한국교회에 치유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뮤직팀을 함께 섬기는 비젼을 갖게되었고 파울루스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첫번째 예배시간때 저의 은사가 뭐냐고 질문을 받았고, 즉시로 악기연주 시범을 보인후 예배때 뮤직팀에서 함께 섬기게되었습니다. 포도나무교회에 온지 2 년 반이 되었고 지금이 3 번째 여름수양회 참석입니다 지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Said 형제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있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저는 아버지가 없기를 바랬고,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권누가선교사님에게과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의 소망은 선교사가 되어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의 비젼은 트럭미션입니다. 트럭 트레일러를 무대삼아 설교를 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것입니다. 아멘